

박지원 “안 ‘철수’ 안 해…시간벌기 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안철수 대표가 당내 중재과 의원들의 ‘조기사퇴’ 최후통첩에 화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안 대표는 어제도 ‘국민에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시간 벌기용으로 써먹는 것”이라고 결국 안 대표가 중재안 수용을 거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전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재과 의원들의 중정과 애당심은 이해한다. 그렇지만 절박하다. 대고 그걸 몇 번 얘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대표가) 죽을기처럼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 벌기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가라비레 웃어 왔는데 웃으면 벗지도 못하고 (통합으로) 주저앉는다”며 “그러니까 우리는 창당의 길로 가지고 중재과에게도 얘기했다”고 했다. 그는 “철수는 ‘철수’하지 않으니가 중재과가 철수하라”고 중재과의 신당 창당 합류를 호소했다.

그는 아울러 가장 민주당화당 운동과 관련해 “최소한 박·정·전(박지원·정동영·전정배)은 당대표 등 전면에 나서지 말자. 우리가 나

당내 중재과 의원들 안철수 조기사퇴 무응답 관련

“가라비레 웃 짓어 통합으로 주저앉게 하려는 것”

“민주당 전면에 안 나설 것…후배들 길 터주겠다”

서면 ‘안철수한테 저서 우리가 해먹는다’ 이렇게 (공격)하니가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우리는 뒤에서 병풍 노릇하자는 것”이라며 “저는 나설 일이 없다”고 공언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안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며 사실상 ‘결별 선언’을 한 데 대해 “국민의당을 데리고 가 보수의 대통령 후보, 집권할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병에 걸렸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런데 박지원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좋을 게 뭐가 있나”라고 결국 ‘보수적자’가 되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대표는 대통령을 해보려고 진보개혁에 위장 취업했다”고 안 대표의 세정치연합-민주당 합당과 국민의당 창당을 후향했다. 이어

“(안 대표가 나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대표를 버리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아울러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에 대해 “배신의 정치인이라고 해서 (대구경북 민심이) 다음 국회의원 안 된다고 하나까 딱 하는 걸 보라. 햇볕정책 안 된다. ‘탈호남하라’(말한다)”라며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로서는 어? 저게 배신 아니냐고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발언. 유 대표가 자신의 보수 정체성 강조를 위해 전략적으로 국민의당 통합 국면에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유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까지 먹어 버리면 진짜 꽃방석이 있는 것”이라며 “자신은 9석 꼬마당 당대표에서 이제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 당대표를

하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유 대표가 국민의당 안 대표를 가지고 놀아 버리는 것”이라고 결국 ‘통합’ 최종 승자는 유 대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아울러 안 대표가 통합 반대 비례대표 의원 제명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데 대해 “일구이언 이부지자(一口二言 二父子·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아버지가 둘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통합 절대 안 합니다”고 통합하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지만 유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 대표가 통합 과정에서 국민의당 내부 갈등에 대해 ‘정치적 해법’을 주문해온 만큼, 실제 통합이 될 경우 유 대표에 의해 비례대표 출당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또 “정치인은 지역구 민심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안 대표의 ‘바른정당 통합’에 끝까지 함께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는 개헌발치를 해서 비록 (처음에는) 원내교섭단체가 되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다 온다고 했다.

중재과 김동철 “통합, 엮질러진 물…여기서 중단 안 돼”

“통합 과정 잘못 있지만 반대파 분당 동의 못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참석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왼쪽부터) 정책위의장, 안철수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김유은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태규 의원.

국민의당 내 바른정당 통합 찬반파 간 중재를 자처해온 김동철 원내대표는 25일 통합에 대해 “안 대표가 말끔하게 추진하지 못한 건 있지만 이제와선 이미 엮질러진 물”이라고 통합 추진 지속이 불가피하다

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는 통합 찬반파 갈등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며 중재과의 행방이 중요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실상 통합파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통합 그 쪽으로 (추진) 하는 건, 전당대회로 가고 하는 것들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통합 공동선언을 거론한 뒤 “첫 단추를 안 대표가 잘못 끼운 것도 있지만 바른정당과 통합 선언문까지 (발표)한 상태”라며 “그런 대국민 선언이다. 그런 상태에서 통합 추진을 여기서 중단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민이 만든 국민의당을 우리가 깨선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통합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면서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것도 잘못됐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 측에서 증오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분당을 해서 당을 새로 창당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안 대표의 통합 추진 과정에 잘못은 있지만 통합 반대파의 신당 창당을 통한 분당 현실화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날 중재과 회동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동조하는 의견이 나왔었다.

당내 중재과가 합류하지 않을 경우 통합 반대파가 추진하는 민주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은 요원해진다.

여기에 안 대표가 ‘최후통첩’을 통해 노린 통합 반대 강성과-온건과 분리 전략이 효과를 거두면 사실상 통합 반대파의 신당 창당 동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중재과가 안 대표 조기사퇴를 ‘제1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안 대표의 결단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 안 대표의 사퇴 요구 수용 여부에 따라 중재과로선 통합 찬성과 반대 측 모두에 합류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안 대표의 이와 관련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과 의원들과 계속 얘기를 나누겠다”고 여전히 말을 아꼈다.

한편 국민의당과의 통합 파트너인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안 대표 조기사퇴 요구에 대해 “저와 안 대표가 통합신당 공동대표로 책임을 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지속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면 ‘아 그게 오해였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1월22~24일 전국 성인 1,509명/6.1%의 응답률 / (단위 %)
표집오차 ±2.5%p(95%신뢰수준)

주중 집계

공정평가: 70.3, 70.1, 71.6, 73.0, 71.5, 70.8, 68.6, 69.9, 68.5, 71.6, 70.6, 66.0, 59.8%

부정평가: 23.9, 24.1, 24.2, 21.4, 22.8, 23.4, 25.7, 25.1, 25.0, 24.1, 23.8, 29.3, 35.6%

文대통령 지지율 '59.8%'

北올림픽 논란에 역대 최저

민주당 지지율도 대선 후 최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5일 평창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로 6.2%p나 떨어진 59.8%를 기록했다. 청와대가 끊임없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 대승적 지지를 요청했지만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따른 논란이 커지면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리얼미터는 이날 tbs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을 주중 집계한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59.8%로 지난주 대비 6.2%p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조사 오차범위 ±2.5%p 이상의 큰 하락폭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5.6%로 6.3%p나 올랐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으로 답변한 비율은 0.1%p 감소한 4.6%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의 ‘평창올림픽이 아닌 평양올림픽’ 공세와 북측 현승철 삼지연관련야간장 괴담 의전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확대된 지난 22일 60.8%(부정평가 34.1%)로 하향세를 보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이 아닌 평양올림픽’ 입장문 발표가 있던 지난 23일에도 59.9%(부정평가 35.3%)로 하락하며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다음달 8일 건군절 열병식을 진행한다는 논란도 지지율 하락세에 반영됐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두

고 진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나흘 연속 ‘평창올림픽 협조 요청’ 메시지를 발표했던 지난 24일에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60.3%(부정평가 35.4%)를 기록하며 60%대를 간신히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모든 연령과 정당지지층, 이념성향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특히 대구·경북과 보수층, 무당(無黨)층에서 10% 이상 두드러지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연립별 지지율에서는 9.4%p 떨어진 40대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40대의 지지율은 지난주 78.2%에서 68.8%로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27.9%였다.

이어 50대(6.4% ↓ 부정평가 41.5%), 30대(6.2% ↓ 부정평가 30.3%), 60대 이상(4.8% ↓ 부정평가 44.3%), 20대(4.2% ↓ 부정평가 30.6%) 순으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2%p 내린 46.1%로 2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최저치다.

자유한국당은 2.9%p 오른 21.0%, 국민의당은 1.1%p 상승한 7.0%, 바른정당은 0.6%p 오른 6.3%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정의당은 0.5% 하락한 4.9%였다.

이번 집계는 지난 22~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4,826명에게 통화로 시도 최종 1,509명이 답을 해 6.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